

# 정서발달과 문학독서

朴和穆

아동문학가 · 한국아동문학회 회장

요즘 나는 두가지 문제를 두고 나의 아동문학작품의 테마로 삼는다. 하나는 취학전 어린이의 독서, 특히 문학물 독서에 관해 짧은 어머니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정서환경의 문제이다.

아파트 빌딩 숲이 주거지공간을 꽉 메우다 보니, 정서환경의 과괴는 위험수위에 다다르다시피 되어 있고, 아파트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설 것은 뻔한 일이다. 이 두가지는 산업사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행히 뜻있는 짧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정서발달과 정서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볼 때, 문제해결에 결코 비관할 필요는 없을 성싶다. 몇몇 아동물출판사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출판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미 출판되어 있는 책도 여러 종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독서, 특히 취학전 아동의 문학독서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보편적으로 좋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아직 물질주의와 상업성에 휘말려서인지, 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키우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도 전시대적인 아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취학전 어린이의 유아기, 즉 3~5살 때 어린이의 가장 소중한 욕구는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매슬로가 지적하였듯이 사랑의 대상인 욕구인데, 산업사회의 하나의 특성으로 나타난 핵가족 구조에서는 이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이, 어린이의 생일날이라든가 어린이날 같은 날에 아이를 값비싼 호텔 부페로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적잖이 있음을 보게 된다. 모처럼의 사치스런 외식이나 또는 값비싼 장난감을 사줌으로써, 그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고 있는 성싶다.

하긴 그것도 자녀사랑의 하나일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귀여운 제 자녀가 어떤 사회구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깨우쳐 바로 안다면, 좀더 적절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바람직한 아동관으로 볼 때, 어린이는 어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존재이므로 저들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본다. 부모가 못다한 이상을 자녀에게서 억지로 성취해보려는 그런 생각으로 어린이에게 피아노공부를 시킨다, 미술공부를 시킨다, 또는 다른 영재교육을 시킨다는 식으로 적성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기예를 억지로 습득시키려 하는 것은 덜 좋은 일이다.

오늘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은 정서환경의 회복이 아닐까 한다. 지능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정서발달이 밀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른바 무서운 아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산업성장만 추구해오는 오늘에 있어, 옛날과 같은 자연적인 정서환경을 되살린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문학독서 혹은 문학물 독서를 통해 간접적인 정서체험을 얻게 하는 일이다.

최근에 무슨 랜드니 해서 대규모의 놀이터가 개설되었다지만, 그런 곳은 상업적인 곳이라서 오히려 물질주의에 물들기 쉬울 뿐 자연환경과 접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차라리 산 속 시냇물을 찾아가 맑은 냇물 속에서 송사리떼가 헤엄치고 놀고 있는 것을 보거나, 바위 밑에 자라서 꽃을 피운 이름모를 풀꽃나무를 보는 것만도 못하다. 생텍쥐페리가 말하였듯이, 어른들은 물질주의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서 참가치를 발견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를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서는 안될 것이다.

# 출판저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1989년 5월 5일 제 40호  
격주간·매월 5, 20일 발행

- |          |  |
|----------|--|
| 오늘을 생각한다 | 2 문화로서의 정치—그 희망의 정치학/朴燦鍾   |
| 현지취재     | 4 활기 넘치는 延辺의 韓人출판계/林然哲   |
| 좌담       | 6 아동도서와 아동독서, 무엇이 문제인가<br>曹大鉉/車元材/趙根台/金順子/金永深  |
| 해외동향     | 10 꿈과 환상이 가득찬 童話의 세계/梁文吉   |
| 세계의 추천도서 | 14 아동도서 추천목록의 관점/李重漢   |
| 서평       | 16 韓永愚「朝鮮後期史學史研究」—李萬烈<br>교수불자연합회「불교의 현대적 조명」—睦楨培<br>17 李永祿「生命의起源과進化」—河斗鳳<br>퍼트리샤 워 「메타픽션」—金聖坤<br>18 鄭玄宗「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원재길<br>尹厚明「원숭이는 없다」—金承玉 |
| 출판화제     | 12 '아동도서 베스트셀러'의 허실  |
|          | 20 해외에 소개되는 한국 전통음악  |
|          | 22 '장애인' 위한 책, 어떤 것들이 있나   |
|          | 23 근대희곡 전모 밝힌 영인본 텍스트  |
| 얼굴       | 13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하는 송영숙씨  |
| 저작구상     | 19 원형사관으로 본 한국인과 유태인/金容雲   |
| 작품구상     | 19 희곡 「칠산리」/李康白  |
| 화제의 책    | 20 국내 최초로 나온 「세계지명사전」<br>21 '찬사'와 '비난' 지양한 김일성評傳<br>최초의 한·중·일 공동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
| 출판계 뉴스   | 23 '어린이도서상' 등 시상   |
| 컬러화보     | 24 이동문학가 李在徹씨의 書架  |
| 지금 독서중   | 26 카프라의 「탁월한 지혜」—신문기자 朴邦柱씨<br>베르고르의 「바다의 침묵」—'북 카페' 주인 曹銀一씨  |
|          | 27 김용택 시집 「맑은 날」—회사원 김준영씨<br>金政棟의 「山,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한독상공회 김은미씨   |
|          | 28 「현단계 한국사무직노동운동」—직장인 蘇昌燮씨  |
| 지금 번역중   | 28 「마키아벨리의 이해와 수용」—충남대 강사 裴柄三씨   |
| 세계의 출판   | 30 美문단서 두각 내는 중국계 작가들·外  |
|          | 32 신간안내  |
|          | 40 200자 안내/이색출판/화제의 책  |
|          | 42 새로 나온 詩集  |
| 실용도서     | 43 가정교육은 이렇게   |
|          | 44 신간목록  |
|          | 47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
| 데스크 칼럼   | 48 편집자와 필자/송상용<br>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   |
|          | 3 표지의 말  |